



AI는 사람처럼 생각할까?

한 줄로 말하면

AI는 사람처럼 이해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아주 많은 예시에서 규칙을 찾아, 가장 그럴듯한 답을 고를 뿐이에요.

비유 · 단골손님 주문 맞추기 매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던 손님에게 "오늘도 그거죠?" 하고 짐작하는 것처럼, AI는 반복된 기록에서 규칙을 찾습니다.

■ 이렇게 흘러가요

- 1. 데이터 모으기** 글·사진·숫자 같은 기록을 아주 많이 모읍니다.
- 2. 규칙 찾기** 기록 속에서 자주 반복되는 모양을 찾습니다.
- 3. 답 고르기** 찾은 규칙으로 새 질문에 가장 그럴듯한 답을 고릅니다.
- 4. 사람이 확인하기** 답이 맞는지, 써도 되는지는 사람이 확인합니다.

■ 꼭 알아야 할 단어

인공지능(AI): 사람이 만든, 기록에서 배워 판단을 돕는 컴퓨터 프로그램

데이터(Data): AI가 배우는 재료가 되는 기록

예측(Prediction): 배운 규칙으로 답을 미리 짐작하는 것

■ 일과 생활 속 예시

- **메일 자동 완성** "감사합니다. 확인 후"까지 쓰면 "회신드리겠습니다"가 뜹니다. 비슷한 메일에서 자주 이어진 말을 고른 것입니다.
- **쇼핑몰 추천 상품** 비슷한 물건을 산 사람들의 기록으로 "함께 많이 본 상품"을 고릅니다. 내 취향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.
- **고객 문의 분류** 문의 글을 "배송·환불·교환" 같은 묶음으로 나눌 때도, 지난 문의에서 찾은 규칙으로 짐작합니다. 애매한 글은 사람이 다시 봅니다.

■ 직접 해 보기

- 휴대폰 문자나 메일 창에 "오늘 회의"까지만 입력해 보세요.
- 자판이나 메일 앱이 추천하는 다음 단어 3개를 적어 보세요.
- 왜 그 단어가 나왔는지 생각해 보세요. 내가 평소에 쓴 말이 규칙이 된 것입니다.

■ 확인 퀴즈

Q1. AI는 사람처럼 상황을 이해하고 생각해서 답한다. O / X

정답 X — AI는 기록에서 찾은 규칙으로 그럴듯한 답을 고를 뿐, 사람처럼 이해하지는 않습니다.

Q2. AI가 배우는 재료를 무엇이라고 할까요? ① 데이터 ② 전기 ③ 화면

정답 ① — AI는 글·사진·숫자 같은 기록, 곧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습니다.

Q3. AI가 고객 문의를 자동으로 분류했습니다. 가장 알맞은 다음 행동은? ① 결과를 그대로 믿고 처리한다

② 애매한 문의는 사람이 다시 확인한다 ③ AI를 다시는 쓰지 않는다

정답 ② — AI의 짐작은 대부분 맞아도 틀릴 수 있습니다. 애매한 건은 사람이 확인합니다.

기억할 한 줄 AI는 "이해"가 아니라 "규칙으로 짐작"합니다. 마지막 확인은 사람이 합니다.